



현대차 베뉴 주행사진.

선택·집중... 당찬 막내가 왔다



현대차 소형SUV '베뉴'

내부, 실용성 초점 심플한 디자인
가속·날렵함 등 주행성능 뛰어난

FCA 등 첨단 안전기술 기본적용
가격 트림따라 1473만~1799만원

“소형 SUV라고 무시할 수 없겠네.”

현대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막내 '베뉴'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조짐이다. 베뉴는 현대차 SUV 라인업에서 크기가 가장 작지만 차량 곳곳에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다. 현대차가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현대차가 지난 11일 진행한 시승 행사에 참석해 베뉴를 직접 만나봤다. 시승 구간은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에서 여주시 강변유원지까지 왕복 145km 구간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은 작지만 단단하다는 느낌을 준다. 네모 모양의 주간주행등은 베뉴의 고유함으로 다가온다. 쌍용차 티볼리(1590mm)나 형님 격인 코나(1550mm)와 전고(높이·1565~1585mm)가 비슷하다.

내부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 복잡함보다는 심플함을 담고 있다. 글러브박스 위쪽에 위치한 작은 수납 공간은 스마트폰 등 간단한 짐을 올려둘 수 있

다. 내부 인테리어의 배치가 잘 돼 있고 정교하다. 다만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400만원대로 출시된 만큼 구성과 부품, 소재 등에서 원가절감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주행 성능은 생각했던 것보다 뛰어났다. 초반 가속력과 고속 구간 등에서 불편한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베뉴는 1.6 가솔린을 탑재했다. 스마트스트림 G1.6 엔진에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를 맞춘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적용했다. 최고출력 123마력에 최대토크는 15.7kg·m이다.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으니 빠르게 치고 나가면 날렵한 움직임을 보였다.

고속주행도 만족스러웠다. 평일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에 힘을 주자 순식간에 150km를 넘겼다.

베뉴의 복합연비는 13.3km/L(17인치 타이어 기준)로 동급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실제 시승에서는 15.4km/L로 뛰어난 연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뉴의 가장 큰 매력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 등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을 기본 적용해 주행중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또 여성 고객을 위한 배려로 적외선 무릎 워머, 프리미엄 스피커,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반려동물 패키지 등 다양한 편의장비도 갖추고 있다.

베뉴의 가격은 트림에 따라 1473만~1799만원으로 책정됐다. /양성운 기자

열사의 땅, 두산 굴착기의 힘

사우디 등 잇따른 대규모 수주로
중동 점유율 2배 성장, 13.4%

중대형 굴착기, 대형 휠로더 등
상반기만 총 460대 장비 판매
이라크 등 다른국가도 판매 주력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국가들과 대규모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시장점유율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 상반기 중동 건설기계 시장점유율 13.4%(5월 누계)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초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Aramco)의 공식 협력업체인 아라비안 머시너리에 휠로더 20대 판매를 시작으로, 사우디 여러 건설업체들에 19~52톤급 중대형 굴착기 70여 대를 판매하는 등 대규모 계약들을 체결했다.

대형 장비 수요가 드물었던 오만에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들이 중동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서도 대형 휠로더 13대의 공급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동시장에서 올 상반기에만 총 460여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매출을 달성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걸프협력회의(GCC)에 속한 국가 외 다른 중동 국가에서의 판매 기회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 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시장에서 정부 및

일반 고객들로부터 공급계약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동 내 정치경제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현지 영업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역 맞춤형 신제품으로 GCC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는 동시에 주변국 영업망도 강화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소비자 신뢰회복 나선 아우디폴크스바겐

3년간 국내 사회공헌활동에 100억 쏟아

모빌리티 인재양성 '투모로드스쿨'
서울 중심 연내 22개 학교서 진행

아우디폴크스바겐이 사회공헌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상반기 판매실적이 저조했던 아우디폴크스바겐은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투모로드스쿨'의 내용을 기자들 앞에서 시연하며 미래 인재 양성과 하반기 실적 향상에 대한 포부를 보여줬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2일 국내 자동차 관련 미디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투모로드스쿨'을 시연하며 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향후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진행된 '투모로드 미디어 스쿨'은 퓨처-모빌리티 인재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투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그룹총괄사장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모로드스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 총괄 사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투모로드스쿨 및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발표 등을 함께 진행했다.

투모로드스쿨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서울특별시, 한국사회투자 그리고 레고 에듀케이션과 함께 전개

하는 활동으로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미래 이동수단 기술 관련 교육이다. 자율학기제와 연계된 전통화 및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프로그래밍(코딩)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된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그룹 총괄 사장은 “투모로드스쿨 등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2개 학교에서 진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판매 전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 총괄 사장은 “다음 주부터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 사전 계약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나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14번 탑승게이트에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과 상하이 첫 편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이 함께 신규취항을 기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인천~상하이 정기노선 첫 운항

국적사 LCC 최초 취항
기존사보다 최대 40% 저렴

이스타항공이 인천-상하이 신규 취항식을 갖고 첫 운항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2일 오후 8시 20분 인천국제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서 이스타항공 임직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하이 정기편 취항식' 행사를 열었다.

이스타항공의 인천-상하이 노선은 지난 5월 국적사 중국 운수권 배분 이후

첫 번째 취항 노선이다. 기존 대형항공사(FSC) 대비 평균 20~40% 저렴한 가격으로 운임을 책정하고 시종별 탄력적인 운임을 제공해 고객들의 항공편의와 수요 증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인천-상하이 노선의 운항일정은 매일 주 7회 운항으로 출국 편(ZE871)은 오후 9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기준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오후 10시 30분 도착하며, 귀국편(ZE872)은 오후 11시 30분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다음날 오전 2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정연우 기자

SK인천석화, 국내 최고 클린공장 만든다

안전·보건 환경경영 500억 투자
오염 배출 저감시설 등 추가 설치

SK인천석유화학은 SK이노베이션 계열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벨런스' 실천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 클린공장 구현을 선언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안전과 보건 환경경영(SHE)에 올해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린벨런스는 SK이노베이션 계열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최근 자체 평가에서 '마이너스' 판정을

받은 환경분야 사회적 가치를 '플러스'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SK인천석유는 2006년부터 SHE 분야에 3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왔다. 연간 250억원 꼴이다. 올해는 두배인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공정시설도 최적화한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정기보수 기간 동안 배연탈질설비(SCR)를 추가 설치해 대표적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연간 83톤 이상 감축한다. 열교환 최적화 및 원유정제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연평균 전체 연료 사용량의 2%를 절감한다. 온

실가스(CO2) 배출량은 연간 약 3만 6000톤 감축한다.

SK인천석유는 SK로 인수된 2006년부터 친환경과 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해 왔다. 2018년 기준 먼지는 2008년 대비 97% 감소했다.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은 2006년 대비 각각 84.7%, 69.3% 줄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조 60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신설 공장이 추가로 가동 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오염물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SHE 관리 시스템 강화 및 집중투자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